

“하느님과의 화해! 주 날개 밑에서 편히 쉬소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김○○(75/M)
- 종교: 가톨릭 (스테파노)
- 진단명: 폐암
- 과거력: 다발성 근염, 고혈압, 당뇨, 결핵
- 입원 경과: 2015.5월 폐암 진단받고 진단 당시부터 치료 원치 않아 연고지 문제로 양양에 거주. 비브리오 성 폐렴, 폐색전, 정맥혈전증 등으로 강릉아산병원 Follow up 중으로 호흡곤란, 식욕부진 등의 컨디션 저하되어 호스피스 치료에 관해 설명 및 동의 받은 후 호스피스 병실 입실함.
- 호스피스 완화병동 입원: 2016.10.20. ~ 2016.11.18.

•임종일: 2016.11.18.

<입원 시 상태>

- 활동 상태: ECOG: 4. 자가 간호 완전 불가. 전적인 침상생활 (10-20)
- 의식상태: 명료
- 식이: 죽(1/3~1/2)
- 배뇨 및 배변: 유치 도뇨관 삽입 상태로 입원. (하루 1000cc 이상 배뇨) 1회/3~4일 변비 양상 있음.
- 활력징후: 혈압 140/80mmHg-맥박 100회/분-호흡 24회/분-체온 36.5
- 피부상태: 상지 반상출혈 관찰되며 양하지 부종 관찰되나 피부 손상은 없음.

진료 부분

<병력>

- 2015.5 폐암, 간 전이 진단 (진단 당시 3기 얘기 들었으며 치료 원치 않았다고 함)
- 2016.10.20. 호스피스완화병동 입원

- 호흡곤란 호소함.
- 타 병원 약물력 확인함.(Xanthines, aminophylline, methylprednisolone, furosemide)
- 폐렴으로 항생제 사용 중임.
- 호흡 24~26회/분 관찰됨.
- 전원 당시 O2 5L/min via nasal prong inhalation (치료계획)
- 타 병원 약물 및 항생제 치료 유지함.
- 활력 징후 사정함.

<주 증상에 따른 진료과정>

- # 1. 호흡곤란 (사정)

- 양측 흉곽의 움직임 및 빈맥, 호흡곤란, 불안, 청색증 등의 증상 관찰함.
- 네블라이저 치료 시행함. (아트로벤트 하루 3차례)
- 필요 시 Morphine 5mg 또는 Dexamethasone 5mg 정맥주사로 투약함.
- (반응)
- 산소포화도 94% 이상 유지하며 호흡곤란 완화됨.
- 과도한 호흡근 사용 없음.

2. 수면장애

(사정)

- 밤에 자주 깬. (30분 이상 숙면 취하지 못함)

- 수면제 및 안정제 등의 필요 시 약제 사정함.
- 불면으로 인한 전신 쇠약증가 호소함.

(치료계획)

- 수면방해요인을 말하도록 함.
- 수면제 (Zolpidem 10mg) 경구 투약함.
- 호흡곤란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해 수면 전 Morphine 5mg IVS 투약함.
- 낮에 수면을 줄이도록 설명함.
- 눈가리개를 사용해 보도록 격려함.

(반응)

- 비교적 잘 잤다고 표현함.
- 수면 리듬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절함.
- 수면 양상 개선 보임.

간호 부분

<간호학적 진단>

폐종양으로 인한 활동 지속성 장애

(대상자특성 및 사정)

- “가슴이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어”
-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
- 일상수준의 신체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숨찬 증상으로 소변줄 착용 중임.
- 피로감 호소함
- 호흡곤란으로 인해 침상에서만 있는 모습 보임.
- 활동량 저하됨
- 휴식 요구가 증가함.
- (간호계획 및 중재활동)
- 호흡곤란 양상 사정함.
- 부동 합병증 (욕창, 폐 합병증) 교육함.
- 산소요구를 증가시키는 활동 (너무 춥거나 높은 온도, 스트레스 등) 제한함.
- 안전한 환경 제공함.
- 움직일 때 도움이 필요한 정도 사정함.

- 의식상태 사정함.
- 저산소증 (빈맥, 착란, 호흡곤란, 불안, 청색증 등) 사정함.
- 적당한 휴식을 돕기 위해 투약과 치료계획 조정함.
- 체위변경 중요성 설명함.
- 통증 정도 사정함.
- 활동 중 규칙적인 휴식을 하도록 교육함.
- 활동요구 충족 위해 가족의 참여 지지함.
- 활력 징후 측정함.

(대상자 반응 및 사정 결과)

- 움직일 때 가족 또는 완화의료 도우미에게 도움 청하여 활동요구 충족시킴.
- 2시간마다 체위변경에 협조적이며 욕창 등 부동합병증 없음.
- 의식 수준 명료함
- 활동 후 이완 요법으로 숨찬 증상 조절하고 있음.
- 충분한 휴식 취하고 있음
- 호흡곤란 많이 나아졌다 말씀함.

수면장애

(대상자특성 및 사정)

- 밤에 자주 깬
“ 답답해서 깬어요, 식은땀도 나고 숨도 차요”
- 새벽에 깨어나 잠들지 못함
- 수면제 복용 후에도 (스틸녹스정 10mg IT po) 잘 못 잠
-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잠들기 어렵다 말함.
(간호계획 및 중재활동)
- 눈가리개를 사용해 보도록 격려함
- 빛, 소음, 감각자극 줄여줌
- 수면 방해요인을 말하도록 함.
- 수면 양상 사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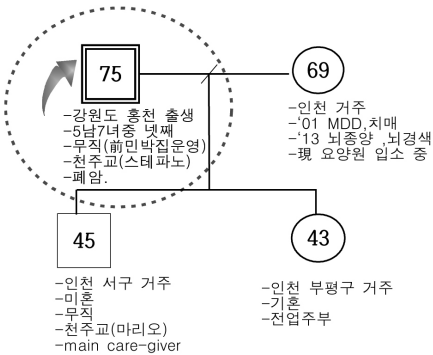
- 수면장애 원인을 파악하여 약물 조정에 대해 (취침 전 몰판 5mg iv) 설명함.
- 자기 전 카페인 함유 음료(홍차, 커피, 콜라 등) 제한함
- 불면증으로 인한 불안감에 환자분 손잡아주고 이야기 경청하며 정서적 지지함.
(대상자 반응 및 사정 결과)
- 눈가리개하고 수면 취함.
- 침상 위 취침 등 소등하며 수면 취함.
- 오후부터 카페인 음료 드시지 않으며 교육 내용 이행함.
- 취침 전 약물 투여 후 아침까지 수면 취함.
- 밤 동안 진통제 투여횟수 없음

사회복지 부분

<입원기간>

- 2016년 10월 20일 ~2016년 11월 18일

<가계도>



가족종교:천주교
주요 돌봄 제공자:환자의 아들
주 의사 결정자:환자, 아들

<개인력>

- 강원도 홍천출생, 5남7녀중 넷째, 무직(前 시계 기술공, 민박집 운영), 천주교(스테파노), 폐암.

- 외향적이며 활동적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라고 함.
-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 두었으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약 30여 년간 가족과 별거하며 지내음.
- 홀로 강원도 양양군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지내오던 중 2015년 5월 다발성근염으로 치료 도중 2015년 6월 폐암 3기 진단받고 적극적인 치료거부 하였다고 함.
- 2016년 4월 폐렴, 폐색전증 진단받고 '강철같이 건강에 자신 있던 자신이 왜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에 우울감 커 수면제를 100일 동안 모아 한꺼번에 복용하여 자살 시도 하였으나 아들에 의해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 없었다고 함.
- 이후 폐렴 등으로 숨찬 증상 악화되면서 2016년 10월 20일 본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함.
- 현재 자살 생각은 없으나 통증과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가지고 있으며 숨찬 증상으로 인해 불안감 크다고 호소함.

- 자신이 아픈 상황에서 평생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사실로 인한 죄책감과 미안함 가지고 있음.
- 천주교 신자였으나 약 50여 년간 냉담하면서 영적 돌봄에 대해 원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슨 염치로...'라며 말끝을 흐렸고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죄의식 가지고 있음.

<심리 사회적 측면>

환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 등 부정적 인식

(사정)

- 아버지로서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채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며 죄책감 호소함.
- 천주교 신자로 약 50여 년간 냉담한 사실에 대한 죄의식 가지고 있음.

(개입)

- 지속적인 면담 통해 환자가 노력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삶의 실패자로 인지하지 않도록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으로 '수고했다고 격려, 지지함.'
- 환자가 느끼는 우울, 상실, 불안, 두려움의 감정 등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면담 및 프로그램 연계함. (emotional support, ventilation)

- 원목실, 자원봉사자팀장과 연계하여 환자의 영적 돌봄 제공함.

(결과)

-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 무뚝뚝했던 환자가 아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용기를 내 표현하며 눈물을 보이며 가족의 마음 전하기 진행됨.

- 원목실 및 자원봉사팀장과 연계되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기도 제공, 고해성사를 본 후 심리적 안정 제공됨.

호흡곤란 등 신체화 증상으로 인한 불안감

(사정)

- 호흡곤란 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불안감 호소함.

(개입)

- 항상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으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달하여 심리적 안정감 유도함. 평소 좋아했던 낚시와 등산 등 활동 등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격려함.

(결과)

- 네블라이저 치료 및 약물 투약 이후 안정 취했으며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하는 모습 보임.

<가족적 측면>

아들의 소진감

(사정)

- 환자 부부의 질환으로 홀로 간병을 도맡고 있음. (환자의 딸의 경우 嫗父(시부) 또한 폐암으로 오랫동안 간병한 이후 임종한 상태로 함께 환자를 케어하는데 어려움 큼)

(개입)

- 아들의 소진감 완화를 위한 상담, 원내 자원봉사자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이용을 통한 아들의 휴식시간 제공.

(결과)

- 지속적인 지지적 면담 시행, 요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emotional support, ventilation 됨.

원목 부분

<종교적 배경>

처음에 환자는 종교에 대해 아무 얘기 없었으나 환자 방문하여 기도드린다고 하니 세례명이 있다고 하면서 안 다닌 지 오래라고 하였다. 원목자가 직접 방문하니 본인이 나서서 기도를 청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였다.

<원목자와의 만남>

두 번째 방문 때에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강원도 홍천에 살 때 세례받고 성당을 조금 다니다가 이사를 자주 하면서 성당을 다니지 못하였고, 먹고 살기 바빠서 멀리하고 지냈다고 하였다. 마음으로는 늘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병이 들어 이제야 하느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몇 년 정도 되었는지 물으니, 1965년까지 기억 난다고 하였다. 자녀들도 세례는 받았으나 부모가 다니지 않으니 같이 다니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병든 부모 뒷바라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한다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하였다.

부인은 요양원에 누워 있는지 몇 년 되었으며, 환자도 2년 전부터 병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호스피스 병동까지 오면서 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 정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화해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나누며 계시는 동안 편안한 게 지내시는 것이 어떠시냐고 권유해 드렸는데,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다. 며칠 후 환자가 자원봉사자에게 고해성사를 받고는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원봉사들이 고해성사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서 성찰할 수 있는 책도 드렸는데, 환자는 여전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미루고 있었다. 주 돌

봄 자가 아드님이었는데, 환자를 만나러 가면 아드님이 피해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옆에 계시는 환자의 비상세례 대부분 해 주시겠다고 상의를 하니 자격이 없을 것 같다 하면서도 기꺼이 대부분을 서 주어서 그 환자가 있는 동안 함께 기도하고 비상세례를 받은 환자가 먼저 하느님 곁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그분의 모습을 통해 다시 일깨우며 좋아하였다. 숨쉬기가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에 힘도 없어서 성당에 가기가 어렵다며 마음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지내는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드디어 환자가 마음을 먹고 고해성사 보기를 청하였다. 환자는 휠체어에 앉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고해성사를 병실에서 받아야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침대를 옮길 생각을 하며 준비를 하게 하였다. 시간은 흘러가고 환자는 조금씩 더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 원목 신부님과 시간 약속을 하고 침대 채 성당으로 옮겨서 고해성사를 받게 하였다. 환자는 고해성사를 잘 받았고 50여 년간의 냉담을 풀 수 있게 되었다. 몇십 년 동안 마음에 있던 것들을 풀어내고 아주 편안한 마음이 되었기에 병자성사와 봉성체를 준비하였는데, 아쉽게도 그 날 밤에 하느님 곁으로 가셨다.

< 마무리 >

환자는 고해성사를 통해 오랜 시간 떠나있던 하느님과 화해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원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도 하느님과 화해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안타깝고 아쉬웠다. 하지만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가셨기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리라 믿으며 기도하였다.

자원봉사 부분

50년 냉담하신 형제님이 계시는데 수녀님께서 고해성사를 볼 수 있게 준비를 시켜줬으면 하셔서 병실을 다녀왔다며 화요팀에서 문자가 왔다. 다음날 수요팀이 병실로 환자를 찾아갔더니, 그분은 김○○ 님 이셨고 세례명은 스테파노라고 하셨다.

병실에 들어가니 스테파노 형제님이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계셨지만 주무시는 것은 아니었기에, “스테파노 형제님 저희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눈을 뜨시고 바라보셨다. “스테파노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 세례는 받으셨는데 성당에는 안 나가신다니요.” 하고 여쭙어 보니 성당에 안 나가신 지가 50년은 되셨다고 대답하셨다.

어린 시절 종교를 가지고는 싶었는데, 개신교는 싫었고 가톨릭에서 스테파노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장하면서, 군대를 다녀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성당에서는 멀어지셨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50여년이 흘러갔다고 말씀하셨다.

“고해성사 보셔야죠” 하고 말씀드리니, “기도문도 모르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잊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셨다.

“그런 걱정은 마시고 꼭 고해성사를 보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도록 하세요.” 라고 격려하며 “신부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형제님을 안심시켜드리면서 병실을 나왔다.

다음날 원목 수녀님께 “스테파노 형제님 고해성사 보셨는지요” 하고 여쭙었더니 안 보셨다고 말씀하셔서 병실로 찾아가니 아드님이 옆에 계셨다. 아드님과 인사를 나눈 뒤, “스테파노 형제님 고해성사 보셨어요?” 하고 여쭙어보니 하시

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고해성사를 보려고 생각을 하면 자꾸만 하기 싫은 생각이 드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기 싫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기 싫다는 생각을 떨쳐내 버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며 꼭 고해성사 보셔야 한다고 당부 말씀을 드리자 스테파노 형제님께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셨다.

월요일 병원 성당 11시 미사를 드리는 중에 신부님 말씀이 “오늘 12시에 고해성사가 있는데 이분은 휠체어를 타실수가 없어서서 침대 채 성당으로 와야 하니 기도하실 분들은 잠시 고해성사 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아~ 드디어 스테파노 형제님께서 고해성사를 보시는구나’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원목 수녀님께 “수녀님 스테파노 형제님 고해성사 보시는 거예요?” 하고 여쭙어보니 수녀님께서 “네” 하고 대답하셨다. 참으로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쁜 시간도 잠시 이틀 후에 병원에 가니 고해성사를 보시고 다음 날 임종하셨다고 했다.

네? 저는 얼마나 황망하던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 고해성사를 보시고 하느님과 화해를 하시고 가셨으니 다행이기는 한데, 하지만 좀 더 계시면서 병자성사도 받으시고 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았다.

그래도 용기를 내셔서 고해성사를 보신 스테파노 형제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아멘